

여름 밤하늘에는 낭만이 있다! (7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초 여름 별자리 여행'

최근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여행지가 인기가 있다. '별자리 여행'이 대표적. 별자리 찾기, 천체망원경 관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낭만적인 '별자리 여행'을 떠나보자.

<지난호에 이어>

➔ 꼭 한번 가볼 만한 전국 유명 천문대

☆ ★ 양평 중미산천문대

중미산천문대는 서울 인근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날씨만 좋으면 별 3천개가 보인다고 한다. 사실 천문대라 규모는 작지만 프로그램이 풍부하다. 천문우주학과 출신 강사가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별 이야기를 전해주며, 숲해설가와 함께 중미산휴양림을 산책할 수 있다. 당일 코스, 1박 2일, 2박 3일 패키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름이 6.6m인 원형 회전돔에 설치된 12인치 반사굴절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다.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한 노천 관측대도 설치되어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데다 중미산휴양림에서 휴식을 할 수 있어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근처에 서종깎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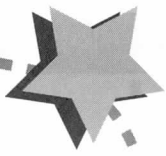
두물머리와 세미원, 용문사 등 관광지가 많아 연계 여행 코스를 잡기에도 그만이다.

중미산천문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체험학습 지정기관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열리는 천체캠프가 유명하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천체 관측과 더불어 숲 체험, 산악오토바이, 수상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숙박이 부담스럽다면 가족과 연인을 위한 당일 별자리 코스를 권한다. 별이 보이는 날에는 교육을 받은 뒤 천체 관측을 하고, 별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야광성도를 제작한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17-1

▶이용시간 : 오후10시~밤12시

▶이용요금 : 1인당 2만~3만원(1박 2일 기준, 사전 예약 필수)



▶문의 : 031-771-0306, www.astrocafe.co.kr

▶주변볼거리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 안개라도 끼는 날에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CF와 웨딩 야외 촬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일교차가 큰 맑은 날, 아침 일찍 찾는 것이 좋다.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뜻의 세미원은 약 12만5천6백20㎡(3만8천 평) 부지에 조성된 수생식물원이다. 수련 50여 종과 수생식물 60여 종으로 단장되어 있다. 장독대와 빨랫돌, 맷돌 등 토속적인 느낌으로 꾸며진 정원이 아름답다.

용문사 용문산 내에 있는 사찰. 신라 신덕왕 때 대경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와 정지국사 부도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대웅전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 1천1백년가량, 높이 60m, 둘레 14m에 이르는 동양에서 가장 큰 나무다.

☆ ★ 영월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의 해발 7백99.8m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 천문대. '별마로'라는 이름은 '별'과 정상을 뜻하는 마루의 '마', 고요하다는 뜻을 지닌 한자어 '로'의 합성어다. 별마로천문대는 천문대로도 유명하지만 영화 <라디오스타>를 촬영한 이후 더 잘 알려졌다. 시민 천문대 가운데서는 보유한 망원경 수나 수준이 가장 우수하며, 관측 여건도 좋아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날짜가 1년에 1백90일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에서 차를 달려 2시간 30분 정도면 닿는 거리도 매력적이다. 천문대 주변에 삼림욕장, 극기훈련장, 숲속 야외 공연장 등이 있어 천체 관측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다.

별마로천문대는 봉래산 청정 고지대에 자리하



고 있어 삼림욕장으로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문대 측에서 아예 입구 옆쪽에 자그마한 삼림욕장을 마련해두고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천체 관측도 좋지만 여기까지 와서 삼림욕을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운이 좋으면 밤 산책길에 반딧불을 볼 수도 있다.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 1리 산59

▶이용시간 : 하절기 오후3~11시(10시까지 입장 가능), 동절기 오후2~10시(9시까지 입장 가능), 매주 월요일·공휴일 다음날·추석·설날 휴관

▶이용요금 : 어른 5천원, 청소년·어린이 4천원

▶문의 : 033-374-7460, www.yao.or.kr

▶주변볼거리

단종 유적지 영월에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와 그가 묻힌 장릉, 사약을 받고 승하한 관풍헌 등이 있다. 특히 장릉 내에 있는 단종역사관에는 단종의 즉위식부터 사약을 받는 모습 등이 모형으로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끈다.

어려운 동강 최고의 절경지로 꼽히는 곳. 단종의 영혼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는 머물러 쉬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최근에는 래프팅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강폭이 넓고 유속이 느려 아이들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 양주 송암천문대

한일철강 엄춘보 회장이 사재 3백50억원을 들여 2년7개월간 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 테마파크. 지하1층, 지상3층의 천문대와 지상2층 규모의 스페이스센터, 지상4층의 숙박시설인 스타 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람객들을 위해 케이블카를 운행한다. 다양한 종류의 중·고급 망원경이 갈릴레이 관에 설치돼 있어 밤하늘의 별과 달은 물론 서울 근교의 야경도 만끽할 수 있다. 또 보조관측 장비인 천체 관측용 CC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이 관찰한 별자리를 직접 촬영해 간직할 수도 있다. 사계절 달라지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편안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우주 공간을 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우주 학습 공간 챌린저센터 등이 이곳의 핵심 시설이다. 주말에 '1박 2일 가족 캠프'에 참가하면 천문대에서 하룻밤 묵으며 환상적인 별자리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 방문할 거라면 테마 축제 및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다. 개기월식 이벤트, 토성 관측 프로그램, 봄맞이 꽃바람·별바람 축제, 가족음악회 등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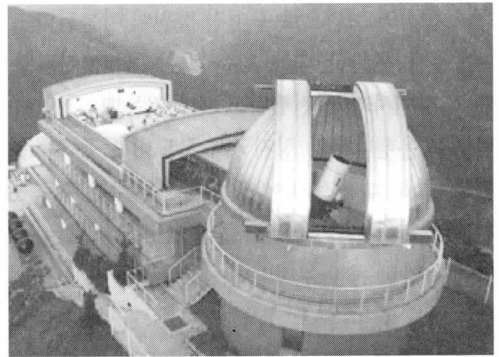
-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410-5
- ▶ 이용시간 : 평일 오전11시~오후10시, 주말 오전10시~오후10시, 매주 월요일 휴관
- ▶ 이용요금 : 어른 2만원, 청소년 1만8천원, 어린이 1만6천원(사전 문의)
- ▶ 문의 : 031-894-6000, www.starsvalley.com
- ▶ 주변볼거리

장흥아트파크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이 야외 공원에 가득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전문 테마파크. 색으로 표현되는 4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

중 대표 미술관은 블랙이다. 안쪽에는 피카소, 백남준, 리히텐슈타인, 앤디워홀 등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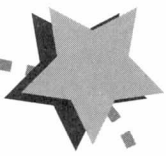
일영허브랜드 약 3만3천58㎡(1만평) 부지에 라벤더, 로즈마리, 로즈가든 등이 그림같이 조성돼 있다. 온실 가득 피어난 세이지, 팬지, 재스민을 비롯한 1백50여종의 허브가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다.

★ 가평 코스모피아천문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자락에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 별에 대한 추억이 없는 도시 아이들에게 멋진 밤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천문돔 2개에 주망원경인 16인치 반사굴절망원경 등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1박 2일 코스의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별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관측 체험을 할 수 있다. 52만8천9백28㎡(16만평) 임야에 잣나무와 낙엽송이 12만 주가 있어 가족 단위 산책, 등산은 물론 삼림욕도 즐길 수 있다 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밤의 '우주여행'과 함께 낮에는 주위의 산과 계곡에서 다른 레저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86
- ▶ 이용시간 : 오후8~10시(가족 단위 기준, 프로



그램별로 시간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

▶이용요금 : 어른 5만원, 청소년 4만원, 유아 3만원, 4세 이하 무료(1박 2일 기준)

▶문의 : 031-585-0482, www.cosmopia.net

▶주변볼거리

명지산 등산 경기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산행지 중 하나로, 경치가 뛰어나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 다양한 산행코스가 있는데, 보통 익근리나 적목리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익근리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승천사 - 삼거리 - 정상 - 1,250봉 - 삼거리 - 익근리로 이어지는데, 총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산이 높은 만큼 주위에 이름난 계곡들도 많은데, 특히 명지계곡은 물이 풍부하고 넓은 암반이 펼쳐져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좋다.

운악산 현등사 신라 범홍왕 때 인도에서 온 마라미 스님을 위해 창건했으며, 그 뒤 고려 때 보조국사 지눌이 중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세가 아름다워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다양한 수종이 우거진 산책로가 인상적이며 바위가 많은 봉우리들이 절경을 빚어낸다.

대성리국민관광지 산으로 둘러싸인 북한강변의 운치가 뛰어나 MT촌으로 각광받고 있다. 약 26만4천4백64㎡(8만여평)의 강변 부지에 산책로와 야영장, 족구장 등을 갖춰놓았다. 강변 나루터에서는 노로 젓는 보트는 물론 모터보트, 수상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 보은 서당골 구병산천문대

유럽의 별장식 방갈로와 울창한 숲이 멋진 조화를 이룬 충북 보은의 서당골 리조트는 온 가족이 찾아 별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리조트다. 지리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측을 방해하는 불빛도 없고, 공기가 무척 맑다. 청정일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덕분에 천

체 관측에는 최적의 장소다. 천문대는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층은 소형 망원경과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10.5m 개폐식 회전돔, 관측실, 관측 제어실, 그릭 주망원경 등이 있다. 이곳은 전문 기자재는 물론 천체 교육용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천문대 주변으로 유럽식 방갈로, 자연학습장, 동물사육장 등 볼거리가 많고,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어 주말 나들이에 적합하다.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서당골 천문대는 별 구경 외에 볼거리도 많다. 조류장·사육장에서 백공작, 칠면조, 원앙 등 10여종의 조류는 물론, 양어장·연못에서 어류 및 도롱뇽, 개구리, 우렁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식물·유실수단지에는 허브, 자생식물 등 1백20여종의 식재가 있으며, 과수단지(호도, 체리, 모과, 대추 등 10여종)와 수목단지(피나무, 박태기나무, 마가목, 낙엽송 등 20여종)로 나뉘어 있다.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 산14-2

▶이용시간 : 하절기 오후8~11시, 동절기 오후 7~11시

▶이용요금 : 어른 3천5백원, 학생 2천5백원

▶문의 : 043-542-0981, www.seodanggol.co.kr

▶주변볼거리

속리산 법주사 높이가 무려 33m에 이르는 금동미륵대불과 팔상전을 비롯해 쌍사자석등, 석련지, 마애여래상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입구에 있는 전통 찻집에는 법주사 주지스님이 그린 달마도가 상설 전시되고 있다.

삼년산성 충북은 삼국시대에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인 만큼 산성이 많은데, 그중 삼년산성이 가장 유명하다.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한 독특한 축성 방식이 눈에 띈다.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산책 코스로도 좋다. (5)

[출처 : 우먼센스]